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79-94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79

KJHD

20대 남성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Men in Their 20s: Serial Mediation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hame

1차원고접수: 2026.07.02. 수정원고접수: 2026.08.29. 최종게재결정: 2026.09.19.

박지원[1] · 이승연[2]
[1]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2]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Park, Jiwon[1]
Lee, Seung-Yeon[1]
[1]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성 데이트 폭력 가해의 상대적 심각성 및 통제적인 양상을 강조하는 성별 비대칭성 관점에 주목하여,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20대 남성 396명의 자기보고 설문 데이터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고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심의 단순 매개효과와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남성의 부적응적인 관계 내 행동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의미와 개입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데이트 폭력 가해, 남성 성역할 갈등, 수치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mediated by gender role conflict and shame among men in their twenties who had been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Self-survey data of 396 men were analyzed to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ndirect effects via bootstrapp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direct effect of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on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was not significant. The simple mediation effect of gender role conflict was not significant, while the mediation effect of shame was significant. The serial mediation effect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hame was significant. The present findings underscore that gender role conflict and shame may serve as crucial mechanisms linking masculinity-related pressures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Keywords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gender role conflict, shame*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2026)을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이승연(Lee, Seung-Yeon)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slee1@ewh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데이트 폭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건 중 하나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80% 가량 증가하였고(경찰청, 2024), 형사 입건 수는 2018년 대비 2023년에 약 39% 증가하였다(경찰청, 2023).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고(Pill, Day, & Mildred, 2017), 심할 경우 교제 살인이라는 극단적 결과로도 이어짐에도 불구하고(Stöckl et al., 2013), 흔히 사적인 사안으로 간주해 간과될 뿐 아니라(Miller, 2011),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데이트 폭력이란 과거 또는 현재 연인에 의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데이트 폭력 문헌에서는 성별 대칭성-비대칭성 논쟁이 활발하다(Zapata-Calvente, Moya, & Megías, 2025). 성별 대칭성 관점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데이트 폭력 가해의 남녀 유병률의 차이가 없으며(Chan, 2012), 유사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Spencer, Cafferky, & Stith, 2016). 반면, 성별 비대칭성 관점에서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최근 1년의 데이트 폭력 경험만 측정하여 과거 경험들은 간과하며(Cunningham & Anderson, 2023), 자기보고 설문에서 남성은 피해를, 여성은 가해를 주로 보고하는 응답 편향이 있는 등(Zapata-Calvente et al., 2025), 대칭성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 가해에는 성차가 보고된다. 먼저 남성 가해로 인한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며(Stöckl et al., 2013), 주로 심리적이거나 비신체적인 폭력을 쓰는 여성과 달리 남성 가해는 여러 유형의 폭력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Fanslow, Mellar, Gulliver, & McIntosh, 2023). 가해 동기에 있어서도 여성은 자기방어(Johnson, 2006)나 상대의 관심을 얻기 위함이라면(Bair-Merritt et al., 2010), 남성은 주로 관계 내에서 자신의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함으로 보고된다(Johnson, 2006). 따라서 과도하게 이분법적 틀에 의해 살펴보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성차는 성별에 따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트 폭력이 양방향적이라는 점에서(Bates, 2016), 각 성별 고유의 데이트 폭력 가해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 가해의 심각도나 강압적인 특징(Johnson, 2006; Stöckl et al., 2013)을 고려해 남성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 긴장 이론(general strain theory; Agnew, 2017)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의 달성이 좌절되거나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인은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감은 부정 정서를 유발하며, 개인은 긴장감의 원인을 제거하고 부정 정서를 해소하려는 동기로 인해 부적응적인 대처 전략인 공격성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회가 부과한 남성적 규범(masculine norms)이 남성이 따라야 할 목표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은 거시체계로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며(Bronfenbrenner, 1979)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일생동안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Bussey, 2011). 특히 성과 관련된 규범은 남성과 여성의 가장 명백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이다. 모든 남성은 남성이라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가 정한 성 규범(gender norms)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남성적 규범에 순응하는 것은 분명히 적응적 가치가 있고, 항상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Mahalik et al., 2003). 그러나 과도한 순응은 부적응적인 개인내적 및 관계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Wong, Ho, Wang, & Miller, 2017). 이에 본 연구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수준이 부적응적인 관계적 행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conformity to masculine norms)은 사회가 남성에게 기대하는 기준을 개인의 공

적 및 사적 영역에서 충족하려는 정도를 이야기한다(Mahalik et al., 2003). 최근 메타 연구에 따르면 이는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현화 행동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는데(Krivoshchekov, Gulevich, & Blagov, 2023), 다면적 개념인 남성적 규범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나 폭력의 관용 등과 같은 측면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공격성을 정당화할 가능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Mahalik et al., 2003). 이러한 규범을 자신의 신념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재화해 왔다면(Beck, 2011), 남성은 자신의 핵심 신념 체계에 따라 연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적 태도를 가진 주변의 성인이나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며, 남성적이라 여겨지는 강압적인 갈등 해결 전략에 대한 무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Rogers, Ha, Byon, & Thomas, 2020; Shaked, Baum, & Levant, 2026). 이때, 남성성은 여성성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로 여겨지며, 그에 따라 남성은 정상적이라 규정되는 남성성에서 벗어났을 때, 여성이 여성성 규범에서 벗어났을 때에 비해 사회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된다(Vandello & Bosson, 2013). 따라서 남성들은 그에 부합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도 증가할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 남성성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정적인 관계에 대한 일관적인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Krivoshchekov et al., 2023), 남성적 규범은 그 정의상 문화 특수적이어서(Mahalik et al., 2003) 문화별 반복 검증을 통한 세밀하고 정교한 이해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이를 데이트 폭력과 함께 다룬 국내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주수산나, 박태영, 심현아, 김슬기, 2025).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남성적 규범에 대해 전반적으로 순응하는 수준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규범 중에서도 특히 폭력과 관련된 특정 하위규범의 영향력을 따로 살펴보기 위해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 하위규범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특히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위 규범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관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남성 성역할 갈등이란 남성적 규범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전반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의미한다(Eisler & Skidmore, 1987;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Pleck, 1995). 이는 한편으로는 남성적 규범의 과도한 수용에 따른 역할 수행 압박으로 인해 남성적 규범이 역기능적이거나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수행하고자 자신이나 타인을 심리적으로 제한하면서 경험될 수 있으며(O'Neil et al., 1986),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성을 성취하는 데 민감해져 기준과 실제 자신의 간극을 느끼면서 경험될 수 있다(Eisler & Skidmore, 1987). 즉, 남성 성역할 갈등은 남성성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제약과 남성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남성성 관련 긴장 및 불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Vandello & Bosson, 2013).

따라서 남성적 규범에 대한 높은 순응 수준은 남성성 관련 기준과 역할 수행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 남성성 관련 긴장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Ford & Keane, 2024; O'Neil, 2008).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시 남성성을 회복하고자 친밀한 관계 내에서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Reidy, Berke, Gentile, & Zeichner, 2014). 남성 성역할 갈등은 남성적 규범에 대한 과도한 순응에서 초래되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역기능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히 남성적 규범에 개인이 얼마나 순응하는 지와는 변별적인 개념임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나(이슬기, 2023; Levant et al., 2020), 이 두 변인을 통합적인 기제 안에서 살펴본 연구는 드물어 연구공백이 시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수치심이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수치심은 자기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위협에서 느끼는 자의식적 정서다(Gilbert, Pehl, & Allan, 1994). 이는 부적절한 자신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사회적 거부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경험된다(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Gilbert, 2000). 남성적 규범에 경직되게 순응하는 개인은 내재화된 기준에 따라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할 것이고(Kindlon & Thompson, 2000), 따라서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에 취약해지기 쉽다(Rice et al., 2016). 더불어 남성성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주어지기보다 끊임없이 증명해서 성취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임을 고려했을 때(Vandello & Bosson, 2013), 자신이 남성적 규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될 경우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Efthim, Kenny, & Mahalik, 2001; Thompkins & Rando, 2003).

한편, 수치심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남성이 가하는 폭력의 강력한 동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ippel & Marshall, 2011).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은 정서를 제한하도록 요구되며, 자신의 취약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아야 하는 자의식적 정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Kindlon & Thompson, 2000), 대신 투쟁-도피 반응과 같은 원초적인 방식으로 다룰 것을 학습한다(Krugman, 1995). 따라서 수치심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는 처리되지 못한 남성 수치심과 그로 인한 분노가 외현화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Tangney & Dearing, 2002). 또한 연인관계에서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개방해야 하며 서로의 평가에 신경 써야 하므로, 수치심의 경험은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ivisto, Kivisto, Moore, & Rhatigan, 2011).

본 연구는 특히 20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사회적 기준과 자신을 활발히 비교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Erikson, 1968), 특히 연인관계는 20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남성의 성 규범에 대한 순응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역할 갈등이나 수치심을 통해 어떻게 연인관계 내 부적응적인 행동 양식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20대 남성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 간의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경직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으로 내적 긴장감을 경험하는 남성 성역할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의 위협감, 즉 수치심이 각각 단순 매개 및 순차적인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다(그림 1 참조). 남성이 가지는 고유한 데이트 폭력 가해의 기제를 파악하여, 거시적인 사회 환경이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관계 안에서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적 선택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개입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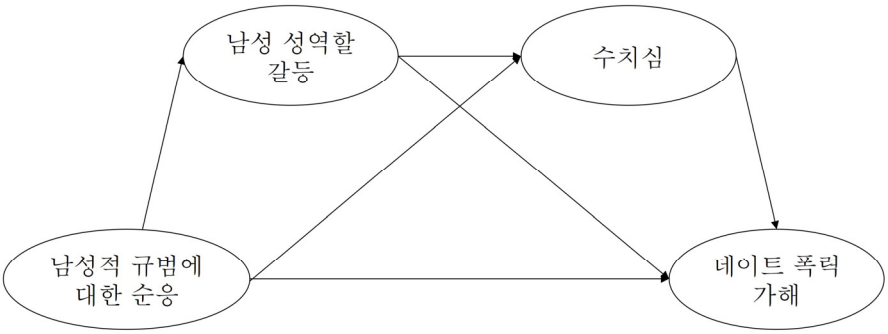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20대 남성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가?

연구문제 2.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연구문제 3.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연구문제 4.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국내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 의뢰기관을 통해 온라인 자기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430명 중 기혼 또는 사실혼 관계로 응답한 24명과 마할라노비스 거리 기준 이상치 10명을 제외하여 최종 3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5.98세 (*SD* = 2.50)였고, 75%가 25 ~ 2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 20명(5%), 중하 99명(25%), 중 192명(48%), 중상 78명(20%), 상 7명(2%)으로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이 226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111명(28%), 2 ~ 3년제 대학 졸업 49명(12%), 대학원 졸업 10명(3%)으로 보고하였다. 248명(63%)은 직장인이었으며, 111명(28%)은 학생, 37명(9%) 무직으로 응답하였다. 병역 수행을 한 응답자는 306명 (77%)였으며, 그 외에는 미필, 면제 및 특례로 응답하였다. 이성교제 경험 횟수의 경우 1회 92명(23%), 2 ~ 3회 180명(45%), 4 ~ 5회 81명(20%), 6 ~ 7회 24명(6%), 8 ~ 9회 5명(1%), 10회 이상 14명(4%)으로 분포해 있었으며, 응답 당시 교제하는 응답자는 188명(47%), 교제하지 않는 응답자는 208명(5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데이트 폭력 가해

Straus 등(1996)이 개발하고 김경신과 김정란(1998)이 국내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한 갈등대처 유형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 CTS II)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5점 리커트 척도(1점: 없음[0회] ~ 5점: 매우 자주[7회~])로 평정한다. 하위요인은 심리적 폭력(예.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모욕한 적이 있다.”) 11문항, 신체적 폭력(예. “상대방을 밀친 적이 있다.”) 7문항, 성적 폭력(예.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심리적 폭력 .95, 신체적 폭력 .97, 성적 폭력 .96, 전체 .98이었다.

2)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Mahalik 등(2003)의 척도를 Levant 등(2020)이 30문항 단축형(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30; CMNI-30)으로 타당화하고 이슬기(2023)가 국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Korean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30; K-CMNI-30)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이성애적 자기제시(예. “사람들이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위험감수(예.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즐긴다.”), 승리(예. “나는 져도 상관없다.”),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예. “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것을 좋아한다.”), 플레이보이(예.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성적 파트너를 자주 바꿀 것이다.”), 정서통제(예.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폭력(예. “나는 폭력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위추구(예. “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

싫다.”), 일의 우위(예. “나에게는 일이 우선이다.”), 자립(예. “나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10개로, 각 3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6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역문항 15개(승리,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 정서통제, 지위추구의 전 문항과 폭력 2문항, 자립 1문항)를 환산한 뒤 전체 평균 점수를 분석에 사용해,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이성애적 자기제시 .89, 위험감수 .82, 승리 .79,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 .73, 플레이보이 .64, 정서통제 .78, 폭력 .66, 지위추구 .80, 일의 우위 .72, 자립 .60, 전체 .63으로 나타났다.

3) 남성 성역할 갈등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과 김진아(2012)가 O’Neil 등(1986)의 성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Eisler와 Skidmore(1987)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그리고 국내 남성성 문헌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이 새롭게 개발한 문항을 포함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위요인은 남성우월(예.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8문항, 일・가정 양립 갈등(예.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6문항, 감정표현 억제(예. “상대방에게 그(녀)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7문항, 성공・권력・경쟁(예.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8문항,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예. “다른 남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5문항, 가장 의무감(예.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3문항으로, 총 6개 하위요인, 3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리커트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6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남성우월 .92, 일・가정 양립 갈등 .86, 감정표현 억제 .87, 성공・권력・경쟁 .81,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82, 가장 의무감 .79, 전체 .96으로 나타났다.

4) 수치심

Tangney와 Dearing(2002)이 개발하고 송경희와 이승연(2010)이 번안한 수치심 척도(State Shame and Guilt Scale; SSG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에서 수치심에 해당하는 5문항만 사용하였으며, 평소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을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아주 많이 그렇다)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SPSS 25.0을 활용해 기술통계 및 신뢰도,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Mplus 8.3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추정의 안정성을 위해 각 변인에 대해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이 있는 남성 성역할 갈등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경우 내용적 동질성을 고려해 내용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수치심의 경우 요인 알고리즘 사용 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저하되어 원 문항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은 10개 하위요인을 아우르는 상위요인(단일요인, 위계적 요인 모형) 모형에서 모두 적합도가 낮아, 이를 하나의 상위 잠재변인으로 구성하기 어려웠고, 이슬기(2023)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지지되었다. 요인 알고리즘 방식으로도 적합도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재변인 대신 전체 평균 점수를 관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측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 개선을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고하되, 동일 요인 내에서 내용상 관련될 수 있는 지표에 한해 오차항 상관을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후,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및 남성성과의 밀접한 관련이 보고된 학력, 병역 수행 여부, 경제 수준과 현재 교제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권인숙, 나윤경, 문현아,

2010; Ahmadabadi, Najman, Williams, Clavarino, & d'Abbs, 2021; Jenkins, McDermott, & Levant, 2025; Yakubovich et al., 2018). 매개효과는 10,000회 재표집한 백분위수 부트스트랩(percentile bootstrap)의 95%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남성적 규범의 다면성을 고려하여(이슬기, 2023; Levant et al., 2020), 선행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및 공격성과의 밀접한 관련이 보고된 네 가지 하위요인 즉, 위험감수(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추구),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정당화), 플레이보이(가벼운 성적 관계에 대한 선호나 여성편력), 폭력(폭력에 대한 수용과 정당화)에 대한 이중매개모형을 탐색적인 보조 분석으로 실시하였다(우성범, 2025; Gerdes & Levant, 2018; Krivoshchekov et al., 2023; Mahalik et al., 2003).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1 참조), 모든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23). 상관분석 결과(표 1 참조),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은 남성 성역할 갈등(r = .39, p < .001), 수치심(r = .23, p < .001), 데이트 폭력 가해(r = .19, p < .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 성역할 갈등은 수치심(r = .72, p < .001) 및 데이트 폭력 가해(r = .55, p < .001)와, 수치심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64,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3) = 334.308$ (p < .001), CFI = .952, SRMR = .054, RMSEA = .087 (90% CI [0.078, 0.097])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을 제외한 잠재요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남성 성역할 갈등 .61 ~ .84, 수치심 .84 ~ .89, 데이트 폭력 가해 .84 ~ .98로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나며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고(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요인 간 상관이 .24 ~ .79로 .90이 넘지 않아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Kline, 2023).

3. 구조모형 분석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토 결과, $\chi^2(127) = 393.918$ (p < .001), CFI = .950, SRMR = .049, RMSEA = .073 (90% CI [0.065, 0.081])로 양호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표 2 참조),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08, p = .06). 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은 남성 성역할 갈등을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β = .41, p < .001), 수치심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β = -.09, p < .05). 남성 성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396)

변인	1	2	3	4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1			
남성 성역할 갈등	.39***	1		
수치심	.23***	.72***	1	
데이트 폭력 가해	.19***	.55***	.64***	1
왜도	-0.48	-0.08	0.60	2.03
첨도	0.75	-0.23	-0.99	3.14
M(SD)	3.34(0.36)	3.19(0.81)	2.05(1.03)	1.51(0.75)

***p < .001.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변인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 남성 성역할 갈등	0.98***	0.12	0.41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 수치심	-0.26*	0.11	-0.09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 데이트 폭력 가해	0.18	0.10	0.08
남성 성역할 갈등 → 수치심	0.93***	0.05	0.81
남성 성역할 갈등 → 데이트 폭력 가해	0.10	0.07	0.12
수치심 → 데이트 폭력 가해	0.47***	0.06	0.60

*p < .05. ***p < .001.

표 3. 매개효과 검정결과

변인	비표준화	95% 신뢰구간	
		lower	upper
CMN → GRC → DV	0.10	-0.031	0.244
CMN → SH → DV	-0.12	-0.222	-0.024
CMN → GRC → SH → DV	0.43	0.288	0.588
CMN → DV 총 간접효과	0.41	0.252	0.577

주. CMN: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GRC: 남성 성역할 갈등, SH: 수치심, DV: 데이트 폭력 가해.

역할 갈등의 경우 수치심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β = .81, p < .001),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12, p = .13). 수치심은 데이트 폭력 가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 .60, p < .001). 각 내생변인의 설명력(R^2)은 남성 성역할 갈등 22%, 수치심 64%, 데이트 폭력 가해 56%였다.

4. 매개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분석 결과(표 3 참조),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95% Bootstrapping CI [-0.031, 0.244]). 반면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는 달리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95% Bootstrapping CI [-0.222, -0.024]). 또한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95% Bootstrapping CI [0.288, 0.588]).

5.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하위요인 별 이중매개효과 분석

앞선 주 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의 네 개 하위요인에 대하여 각각 이중매개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3문항을 지표변인으로 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되, 플레이보이 하위요인의 경우 1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나타나 제외하고 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잠재변인이 둘 이상인 모형에서 각 요인의 지표가 둘 이상이면 식별 가능하다는 규칙에 부합한다(Kline, 2023).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부록 표 1 참조), 폭력 모형은 제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관련 문헌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근거로 유지하였고, 나머지 세 모형은 양호하였다. 또한 네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54 ~ .97, 요인 간 상관 .17 ~ .81로 주 분석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주 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인을 포함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부록 표 2 참조), 네 개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어서 경로계수 검증 결과(표 4 참조), 주 분석 결과와 세 가지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위험감수와 플레이보이 모형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β = .15, ps < .01). 둘째,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수치심을 예측

표 4. 하위요인 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변인	위험감수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	플레이보이	폭력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 남성 성역할 갈등	0.60***	0.29***	0.50***	0.24**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 수치심	-0.02	-0.03	-0.00	0.05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 데이트 폭력 가해	0.15**	-0.02	0.15**	0.09
남성 성역할 갈등 → 수치심	0.81***	0.81***	0.80***	0.76***
남성 성역할 갈등 → 데이트 폭력 가해	0.15	0.25***	0.16*	0.14
수치심 → 데이트 폭력 가해	0.52***	0.51***	0.52***	0.58***

주. 표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p <. 05. **p < .01. ***p < .001.

표 5.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검정결과

모형	CMN → GRC → DV (95% CI)	CMN → SH → DV (95% CI)	CMN → GRC → SH → DV (95% CI)	총 간접효과 (95% CI)
위험감수	0.06 [-0.002, 0.127]	-0.01 [-0.051, 0.030]	0.17 [0.110, 0.255]	0.23 [0.158, 0.301]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	0.09 [0.026, 0.167]	-0.02 [-0.070, 0.035]	0.14 [0.066, 0.235]	0.21 [0.093, 0.336]
플레이보이	0.06 [0.001, 0.111]	-0.00 [-0.038, 0.036]	0.14 [0.085, 0.215]	0.20 [0.131, 0.267]
폭력	0.03 [-0.005, 0.072]	0.03 [-0.019, 0.086]	0.10 [0.026, 0.171]	0.16 [0.070, 0.238]

주. 표에 제시된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추정치임.
CMN: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GRC: 남성 성역할 갈등, SH: 수치심, DV: 데이트 폭력 가해.

하는 경로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와 플레이보이 모형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끝으로 매개효과 분석 결과(표 5 참조),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단순매개효과는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와 플레이보이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했던 주 분석과는 상이하다. 반면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는 주 분석과 동일하게 네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의 성별 비대칭성 관점에 주목하여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특징적인 가해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을 거쳐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단순매개 및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성적 규범의 다면성을 고려해, 선행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및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네 가지 하위요인에 대해 탐색적 보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전반적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수준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나 공격성을 예측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다(Krivoshchekov et al., 2023). 이는 중년 남성까지 포함하는 연구 대상 연령대의 차이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차이 등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한편, 행동이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나 도덕적 규범과 같은 다른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태도-행동 간극 개념에 의해 일부 설명될 수 있다

(Zaikauskaitė, Grzybek, Mumford, & Tsivrikos, 2023). 특히 데이트 폭력과 같은 행동은 도덕적 규범과 직접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관련된 성 규범에 순응한다고 하더라도 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도덕규범에 따라(Turiel, 1983) 행동이 억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 공격성 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 Anderson & Bushman, 2002)과 맥락을 같이 하며, 신념은 공격성에 개인을 예비시키는 좀 더 거리가 먼 배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나타나는 데에는 부정정서나 스트레스와 같은 더 직접적인 촉발요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적 규범에는 폭력이나 강압적인 통제, 여성에 대한 지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보호, 책임이나 기사도 정신을 강조하는 기대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온정적인 성차별주의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컬으며(Glick & Fiske, 1996), 이러한 태도는 결국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폭력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행동 표현은 노골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Bareket & Fiske, 202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의 척도에서 그러한 적응적인 규범들을 다루지 않아 직접적인 추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르게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남성 성역할 갈등은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남성 성역할 갈등은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근거해, 남성 성역할 갈등이 항상 이성관계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인은 스트레스나 내적 갈등을 경험할 때 가능한 행동 레퍼토리 중 그에 대처할 전략을 고르게 되는데(Lazarus & Folkman, 1984), 이때 자신의 신념과 맞닿아 있는 전략들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성이 높을 수 있다(Anderson & Bushman, 2002). 따라서 개인이 순응하는 남성적 규범이 반여성주의나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연인에 대한 폭력을 자신의 긴장감을 해소하거나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 갈등을 회피하거나(Brahnam, Margavio, Hignite, Barrier, & Chin, 2005), 알코올 사용과 같은 다른 위험감수 행동을 하거나(Esper & Furtado, 2013), 다른 남성과의 경쟁 상황에서 공격성이 표출되는 등 데이트 폭력 외 다른 남성적인 방법으로서 회복하고자 할 수 있다.

둘째, 또 다른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나타내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는 약화 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남성 성역할 갈등이 수치심을 예측하는 경로계수의 효과크기는 컸으며(β = .81), 이는 작거나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는 상이하다(정경미, 신희천, 2014; Thompkins & Rando, 2003). 이러한 차이점은 연구 대상 연령의 상이함이나 남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같은 동양 문화의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수연 등(2012)의 성역할 갈등 도구가 남성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asculine Gender Role Stress; MGRS)를 포함함으로써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가설과는 달리 부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먼저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수치심의 이변량 상관이 정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r = .23),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강력한 상관으로 인해(r = .72), 다변량 모형에서 억제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성적 규범이 항상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슬기, 2023; Gerdes & Levant, 2018), 남성적 규범에 빗대어 자신을 검열하는 것은 사회적 적응을 돕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수치심과 같은 부정 정서로부터 일부 완충효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 크기가 작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는 일반 긴장 이론(Agnew, 2017)의 관점에서, 남성적 규범이라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며 그에 도달하려고 할 때, 남성성 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하며, 계속되는 자기 검열에 의한 수치심과 같은 부정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대처 반응으로서 데이트 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주 분석 결과에서 직접효과 및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가 가설과 상이하게 보고된 것은 남성적 규범의 여러 측면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해 단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남성성 관련 문헌에서 논의한 남성적 규범의 다면성과 맥락을 같이 하며(이슬기, 2023; Gerdes & Levant, 2018), 실제로 본 연구의 하위요인 분석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 패턴이 관찰되었다. 먼저 위험감수와 플레이보이(가벼운 성적 관계에 대한 선호나 여성편력)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두 하위요인이 충동성(Reynolds, Basso, Miller, Whiteside, & Combs, 2019)이나 성 행동에 대한 충동성(Dow, Ellis, Morrow, & Hawley, 2025)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충동성이 공격성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범에 대한 과도한 순응은 다른 촉발요인 없이도 데이트 폭력 가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 분석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와 플레이보이 모형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두 하위요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규범에 대한 경직된 순응은 이성관계 내에서의 남성성 수행에 개인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약과 그로 인한 심리적 긴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여성을 향한 공격적 행위에 의존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주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네 하위요인 모두 수치심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는데, 폭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남성적 규범들이 수치심과 상대적으로 약한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규범에 순응하는 개인은 자성 능력이나 정신화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Levinson & Fonagy, 2004) 따라서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를 충분히 성찰하거나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는 모든 하위요인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며, 주 분석과 일관된 패턴을 나타냈다. 이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이 주요한 심리적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한편, 위험감수와 플레이보이의 직접효과가 유의한 점을 미루어보아, 특정 하위요인에 한해서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순차적인 경로 외에도 다른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장면에서 먼저 남성적 규범과 관련된, 경직되고 왜곡된 신념 체계를 다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Beck, 2011)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핵심 신념을 파악했다면, 경직된 남성적 규범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개입은 왜곡된 남성성 신념 체계를 검토하고, 그러한 신념이 어떻게 성역할 갈등, 수치심, 친밀한 관계 내 공격성에 기여하는지 이해를 도와 폭력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Cunha, Silva, Almeida, Caridade, & Gonçalves, 2024). 이 과정에서 위험감수나 플레이보이와 같은 규범은 그 자체만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직된 신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또한 시사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개인의 부적응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거시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직접적인 개인 특질이나 환경 요인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문화적 환경 또한 개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더불어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항상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리적 과정 파악의 필요성이 시사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성역할 갈등과 수치심이라는 주요한 기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시에 전반적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수준과 각 하위요인에 대한 순응 수준이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데 상이한 기제를 나타냄을 확인하며,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데이트 폭력과 연관성을 가지는 데에 있어, 항상 동일하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으로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연구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추후 종단적 연구로 변인 간 방향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공통방법편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데이트 폭력 가해의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M = 1.51). 이는 국내 20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M = 1.56; 박설아, 이승연, 2025), 본 연구 결과를 고위험군이나 임상군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이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성에 한정하였다. 동성의 연인관계에서는 다른 심리적 기제가 작용할 수 있고, 데이트 폭력은 양방향성이 보고되기 때문에(Bates, 2016), 동성 연인관계 및 여성 특수적인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하위요인 보조분석에서 플레이보이 하위요인의 경우 요인부하량 문제로 2개의 지표변인으로 잠재변인을 구성해 추정의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련되는 다른 잠재적인 혼입변인(예;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는 성역할 갈등과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라는 초점이 다른 두 개념을 하나의 도구로 합치면서, 개념적 혼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개념이 각각 포착하는 남성 성역할의 역기능적 측면을 한국 문화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실제 척도 문항의 많은 부분은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에서 비롯되는 불편감과 갈등을 측정하며, 일부 문항은 규범적 태도 그 자체를 측정하는 문제도 관찰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도구이기는 하지만, 이후 개념적으로 타당한 새로운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치심의 경우 남성적 규범에 따른 수치심을 측정하기보다 일반적인 수치심을 측정했기 때문에 개념적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경찰청. (2023). **교제 폭력 형사 입건 건수**. https://www.data.go.kr/data/15095758/fileData.do에서 2026년 3월 2일 인출

경찰청. (2024). **경찰통계자료**.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3.jsp에서 2026년 3월 2일 인출

권인숙, 나윤경, 문현아 (2010). 한국과 대만의 대학문화 비교: 위계와 성차별, 폭력의 군대적 징후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7(1), 145-183. https://doi.org/10.18341/wsr.2010.27.1.145

김경신, 김정란 (1998).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행동과 관련 변인. **생활과학연구**, 8, 1-15.

박설아, 이승연 (2025).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과 우울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발달지원연구**, 14(1), 79-99. https://doi.org/10.22839/adp.2025.14.1.79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우성범 (2025). 전통적 남성성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 긍정적 남성성의 조절 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12(5), 353-370. https://doi.org/10.20496/cpew.2025.12.5.353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1), 5-33. https://doi.org/10.33949/tws.2012.82.1.001

이슬기 (2023).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 (K-CMNI-30)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495-526. https://doi.org/10.23844/kjcp.2023.05.35.2.495

정경미, 신희천 (2014).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공개기대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79-98.

주수산나, 박태영, 심현아, 김슬기 (2025). 데이트 폭력 연구 동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CUTOS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지식 구성 맥락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33(4), 723-744. https://doi.org/10.21479/kaft.2025.33.4.723

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4), 139-157. https://doi.org/10.15284/kjhd.2019.26.4.139

Agnew, R. (2017).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In R. Agnew & J. M. Kaufman (Eds.), *Anomie, strain and subcultural theories of crime* (pp. 113-154). London: Routledge.

Ahmadabadi, Z., Najman, J. M., Williams, G. M., Clavarino, A. M., & d'Abbs, P. (2021).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urrent and prior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915-937. https://doi.org/10.1177/0886260517730563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27-51.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31

Bair-Merritt, M. H., Shea Crowne, S., Thompson, D. A., Sibinga, E., Trent, M., & Campbell, J. (2010). Why do women use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of women's motivations. *Trauma, Violence, & Abuse, 11*(4), 178-189. https://doi.org/10.1177/1524838010379003

Bareket, O., & Fiske, S. T. (2023). A systematic review of the ambivalent sexism literature: Hostile sexism protects men's power; benevolent sexism guards traditional gender roles. *Psychological Bulletin, 149*(11-12), 637-698. https://doi.org/10.1037/bul0000400

Bates, E. A. (2016). Current controversies within intimate partner violence: Overlooking bidirection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8), 937-940. https://doi.org/10.1007/s10896-016-9862-7

Beck, J. S. (2011). *Cognitive behavior therapy: Basics and beyond*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Brahnam, S. D., Margavio, T. M., Hignite, M. A., Barrier, T. B., & Chin, J. M. (2005). A gender-based categoriz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4*(3), 197-208. https://doi.org/10.1108/02621710510584026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Vol. 35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Bussey, K. (2011). Gender identity development.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03-628). New York, NY: Springer.

Chan, K. L. (2012). Gender symmetry in the self-reporting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2), 263-286. https://doi.org/10.1177/0886260511416463

Cunha, O., Silva, T., Almeida, T. C., Caridade, S., & Gonçalves, R. A. (2024). The impact of an intervention program on abusive intimate behaviors, self-esteem, and self-concept of male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20*(4), 1057-1078. https://doi.org/10.1007/s11292-023-09569-7

Cunningham, M., & Anderson, K. L. (2023). Women experience more intimate partner violence than men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or gender asymmetry at all ages in a national sample. *Sex Roles, 89*(11), 702-717. https://doi.org/10.1007/s11199-023-01423-4

Dow, C. V., Ellis, J. R., Morrow, G. D., & Hawley, W. R. (2025). Masculinity unwrapped: The effect of threatening masculinity and the role of the playboy masculine norm on the discounting of condom-protected sex.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6*(3), 373-383. https://doi.org/10.1037/men0000493

Efthim, P. W., Kenny, M. E., & Mahalik, J. R. (2001). Gender role stress in relation to shame, guilt, and extern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4), 430-438. https://doi.org/10.1002/j.1556-6676.2001.tb01990.x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s.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https://doi.org/10.1177/01454455870112001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Esper, L. H., & Furtado, E. F. (2013). Gender differences and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stress and alcohol consumptio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lcoholism & Drug Dependence, 1*(3), 116-120. https://doi.org/10.4172/jaldd.1000116

Fanslow, J. L., Mellar, B. M., Gulliver, P. J., & McIntosh, T. K. (2023). Evidence of gender asymmetry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 at the population-lev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8*(15-16), 9159-9188. https://doi.org/10.1177/08862605231163646

Ford, P. A., & Keane, C. A. (2024). Australian men's help-seeking intentions for anxiety symptoms: The impact of masculine norm conformity and gender role conflict. *Heliyon, 10*(7), e29114. https://doi.org/10.1016/j.heliyon.2024.e29114

Gerdes, Z. T., & Levant, R. F. (2018). Complex relationships among masculine norms and health/well-being outcomes: Correlation patterns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subscale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12*(2), 229-240. https://doi.org/10.1177/1557988317745910

Gilbert, P. (2000). The relationship of sham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e role of the evaluation of social rank.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3), 174-189. https://doi.org/10.1002/1099-0879(200007)7:3<174::AID-CPP236>3.0.CO;2-U

Gilbert, P., Pehl, J., & Allan, S. (1994). The phenomenology of shame and guilt: An empirical investigat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23-36. https://doi.org/10.1111/j.2044-8341.1994.tb01768.x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https://doi.org/10.1037/0022-3514.70.3.491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Jenkins, D. L., McDermott, R. C., & Levant, R. F. (2025). Adhering, rejecting, and conflicting: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emerging adult men's traditional masculinity ideology and gender role conflict.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6*(3), 475-487. https://doi.org/10.1037/men0000515

Johnson, M. P. (2006). Conflict and control: Gender symmetry and asymmetry in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11), 1003-1018. https://doi.org/10.1177/1077801206293328

Kindlon, D., & Thompson, M. (2000). *Raising Cain: Protecting the emotional life of boys.* New York, NY: Ballantine Books.

Kivisto, A. J., Kivisto, K. L., Moore, T. M., & Rhatigan, D. L. (2011). Antisocialit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facilitating role of shame. *Violence and Victims, 26*(6), 758-773. https://doi.org/10.1891/0886-6708.26.6.758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th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Krivoshchekov, V., Gulevich, O., & Blagov, I. (2023). Traditional masculinity and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 meta-analytic examinatio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4*(4), 346-364. https://doi.org/10.1037/men0000426

Krugman, S. (1995).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shame. In R. Levant & W.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91-128). New York, NY: Basic Books.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vant, R. F., McDermott, R., Parent, M. C., Alshabani, N., Mahalik, J. R., & Hammer, J. H. (202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new short form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CMNI-30).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5), 622-636. https://doi.org/10.1037/cou0000414

Levinson, A., & Fonagy, P. (2004). Offending and attach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awareness and offending in a prison population with psychiatric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Psychoanalysis, 12*(2), 225-251.

Mahalik, J. R., Locke, B. D., Ludlow, L. H., Diemer, M. A., Scott, R. P., Gottfried, M., & Freitas, G. (2003). Development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4*(1), 3-25. https://doi.org/10.1037/1524-9220.4.1.3

Miller, L. M. (2011). Physical abuse in a college setting: A study of perceptions and participation in abusiv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6*(1), 71-80. https://doi.org/10.1007/s10896-010-9344-2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https://doi.org/10.1177/0011000008317057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https://doi.org/10.1007/BF00287583

Pill, N., Day, A., & Mildred, H. (2017). Trauma responses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178-184. https://doi.org/10.1016/j.avb.2017.01.014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NY: Basic Books.

Reidy, D. E., Berke, D. S., Gentile, B., & Zeichner, A. (2014). Man enough? Masculine discrepancy stres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8*, 160-164. https://doi.org/10.1016/j.paid.2014.04.021

Reynolds, B. W., Basso, M. R., Miller, A. K., Whiteside, D. M., & Combs, D. (2019). Executive function, impulsivity, and risky behaviors in young adults. *Neuropsychology, 33*(2), 212-221. https://doi.org/10.1037/neu0000510

Rice, S. M., Aucote, H. M., Möller-Leimkühler, A. M., Parker, A. G., Kaplan, R. A., Seidler, Z. E., Dhillon, H. M., & Paulamminger, A. G. (2016).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nd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sed shame on men's depression: Findings from an Australian community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15*(2), 157-164.

Rogers, A. A., Ha, T., Byon, J., & Thomas, C. (2020). Masculine gender-role adherence indicates conflict resolution patterns in heterosexual adolescent couples: A dyadic,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79*, 112-121.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20.01.004

Shaked, O. Z., Baum, N., & Levant, R. F. (2026). Toughen up: Father-son and mother-son relationship matrices in men's traumatic socialization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Journal of Men's Studies, 34*(1). https://doi.org/10.1177/10608265251358766

Sippel, L. M., & Marshall, A. D. (201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shame processing bia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7), 903-910. https://doi.org/10.1016/j.janxdis.2011.05.002

Spencer, C. M., Cafferky, B., & Stith, S. M. (2016). Gender differences in risk markers for perpetration of physical partner violence: Results from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8), 981-984. https://doi.org/10.1007/s10896-016-9860-9

Stöckl, H., Devries, K., Rotstein, A., Abrahams, N., Campbell, J., Watts, C., & Moreno, C. G. (2013). The global 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A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382*(9895), 859-865. https://doi.org/10.1016/S0140-6736(13)61030-2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NY: Guilford Press.

Thompkins, C. D., & Rando, R. A. (2003). Gender role conflict and shame in college me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4*(1), 79-81. https://doi.org/10.1037/1524-9220.4.1.79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dello, J. A., & Bosson, J. K. (2013). Hard won and easily lost: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ory and research on precarious manhood.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4*(2), 101-113. https://doi.org/10.1037/a0029826

Wong, Y. J., Ho, M.-H. R., Wang, S.-Y., & Miller, I. S. (2017). Meta-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nd mental health-related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80-93. https://doi.org/10.1037/cou0000176

Yakubovich, A. R., Stockl, H., Murray, J., Melendez-Torres, G. J., Steinert, J. I., Glavin, C. E., & Humphreys, D. K. (201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of prospective-longitudinal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8*(7), e1-e11. https://doi.org/10.2105/AJPH.2018.304428

Zaikauskaitė, L., Grzybek, A., Mumford, R. E., & Tsivrikos, D. (2023).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doesn't reveal 'attitude-behaviour' gap? Contrasting the effects of moral norms vs. idealism and relativism in predicting pro-environmental behaviours. *PLoS One, 18*(11), e029081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90818

Zapata-Calvente, A. L., Moya, M., & Megías, J. L. (2025). Unveiling the gender symmetry debate: Exploring consequences, instructions, and forms of violence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0*(17-18), 4346-4371. https://doi.org/10.1177/08862605241289477

부록 표 1. 하위요인 별 측정모형의 적합도

하위요인	χ^2	*df*	CFI	SRMR	RMSEA (90% CI)
위험감수	359.986 ($p < .001$)	111	0.957	0.050	0.075 [0.067, 0.084]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	351.403 ($p < .001$)	111	0.956	0.050	0.074 [0.065, 0.083]
플레이보이	330.043 ($p < .001$)	96	0.958	0.043	0.078 [0.069, 0.088]
폭력	419.621 ($p < .001$)	111	0.944	0.088	0.084 [0.075, 0.092]

부록 표 2. 하위요인 별 구조모형의 적합도

하위요인	χ^2	*df*	CFI	SRMR	RMSEA (90% CI)
위험감수	429.416 ($p < .001$)	167	0.955	0.048	0.063 [0.056, 0.070]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	420.858 ($p < .001$)	167	0.954	0.046	0.062 [0.055, 0.069]
플레이보이	403.623 ($p < .001$)	148	0.954	0.041	0.066 [0.058, 0.074]
폭력	485.756 ($p < .001$)	167	0.942	0.077	0.069 [0.062, 0.077]